

국민의힘, 탄핵 시점 늦추는 속내는 '조기 대선' 막기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형량 확정 이후 대선 치르기 시나리오 현재 탄핵심사 최장 180일 ... 민주당, 즉각적인 탄핵·하야 주장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하야 시점을 놓고 여야 입장이 엇갈리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다른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적인 탄핵·하야를 주장하고 있으며,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퇴진 시기와 방법 등을 놓고 당내 이견이 노출되고 있다. 이는 조기 대선 시기에 따라 여야의 유불리가 달라지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10일 정가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내세우고 있지만, 구체적인 방법과 시기에 대해서는 일치된 당론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친한동훈 대표 측은 "탄핵에 준하는 속도로 하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친윤석열 대통령 진영은 '임기 단축, 개헌'을 강조하며 맞서고 있다.

김중혁 최고위원은 MBC 라디오에서 "한동훈 대표의 입장은 '탄핵보다는' 하야가 맞다", "탄핵에 준하는 속도로 하야 프로그램을 밝히는 게 좋겠다"는 것"이라면서 "친윤(친윤석열)계 상당수가 조기 퇴진에 반대하면서 일부 의원은 1~2년 뒤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국민 정서와 전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당 주류인 친윤계·중진 사이에선 2026년 6월 지방선거 때 대선을 같이 치르며 '임기 단축 개헌'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여야 입장이 다르고 여당 내부에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은 각 진영의 '정치적 유불리'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 하야 시 60일 이내 당장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하지만, 탄핵은 심판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는 최장 180일의 시간을 벌 수 있다. 또 탄핵안이 계속 부결되면서 시간이 흐른다면 조기 대선은 더욱 밀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안 심사는 최장 180일로, 인용 결정이 나더라도 60일 뒤에야 대선이 치러진다.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 2016년 12월 9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안이 가결돼 이듬해 3월 10일 현재가 파면을 선고했고 같은 해 5월 9일 대선이 치러졌다.

무엇보다도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탓에 여야 간 입장차가 크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민주당으로서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형량이 확정되는 시점 이전에 대선을 치러야 하고, 여당은 강력한 경쟁 상대인 이 대표의 피선거권 박탈 여부가 달린 대법원 판결 이후 조기 대선을 치르는 게 가장 좋은 카드이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지난달 공직선거법 1심 재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으며, 2·3심에서도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다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 동안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1심 선고가 대법원까지 유지된다면 이 대표의 대선 출마 길은 막히고, 지난 대선 비용으로 국고에서 보전받은 434억원도 내놓아야 한다.

반면 탄핵안이 이달 중 가결되면, 이 대표의 대법원 판결 이전에 차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커지고 '사법 리스크' 부담도 그만큼 덜 수 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재명 대표의 대법원 판결 이후 대선'에는 대부분 수긍하지만 조기 대선 시점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현재 국민의힘 정국 안정화 태스크포스(TF)는 '3월 퇴진 후 5월 대선' 또는 '4월 퇴진 후 6월 대선' 등 두 개 시나리오를 마련해 한동훈 대표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법원 판결시기가 내년 상반기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탄핵 문제가 여야의 '대선 섀벗'과 겹치면서 더욱 복잡하고 진영 간 갈등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내란죄 상설특검법 국회 통과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내란죄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힘 TF, '내년 5월 또는 6월 대선' 로드맵 초안 마련

조기 퇴진 방향 등 한동훈에 보고

국민의힘 정국 안정화 태스크포스(TF)가 내년 상반기 대선 실시를 골자한 정국 수립 로드맵 초안을 마련해 한동훈 대표에게 보고한 것으로 10일 전해졌다. TF 초안에는 '3월 퇴진 후 5월 대선' 또는 '4월 퇴진 후 6월 대선' 등 두 개 시나리오가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TF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1차 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국 수립 방안과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TF 관계자는 통화에서 "조기 퇴진의 방향과 대통령선거 일정, 조기 퇴진 전까지의 정치 복원 방안 등을 세 갈래로 논의를 진행했다"며 "한 대표가 초안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TF가 제시한 퇴진 및 대선 일정은 그동안 친한(친한동훈)계 일각에서 요구해온 '탄핵에 준하는 조기 하야' 일정에 부합한다.

임기 단축 개헌을 병행하며 내년 지방선거에서 조기 대선을 실시하는 방안 등을 거론해온 친윤(친윤석열)계와의 마찰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이양수 TF 위원장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임기 단축 개헌은 논의해도 다음 대선부터 적용되는 것이지 이번 대선은 적용이 안 되지 않나"라며 TF의 검토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한 대표는 TF 초안을 바탕으로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늦어도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안 표결이 예고된 오는 14일 본회의 이전에 로드맵을 완성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연합뉴스

내년 예산 673.3조원...감액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

증액 없이 4.1조원 줄여 검정 특별비 전액 삭감

증액 없이 감액만 반영된 총지출 673조3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 2025년도 예산안을 상정해 재석 278명 중 찬성 183표, 반대 94표, 기권 1표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과 개혁신당 이주영·이준석 의원이 반대했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이 야당 단독 수정을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예산안은 법안과 달리 국회에서 통과되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대로 확정된다.

통과된 예산안은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

별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수정 예산안이다.

예산안은 정부 원안 677조4000억원에서 4조1000억원이 삭감됐고, 증액은 없다. 국회가 예산을 늘리거나 새로운 예산 항목을 신설하려면 정부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정부 동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82억5100만원), 검찰 특정업무경비(506억9100만원)와 특별비(80억9000만원), 감사원 특경비(45억원)와 특별비(15억원), 경찰 특별비(31억6000만원) 등이 전액 삭감됐다.

4조8000억원 규모인 정부 예비비는 2조4000억원을 감액했고, 국고채 이자 상환 예산도 5000억원 감액했다.

정부안에서 505억원이었던 '대왕고래 유전개발' 예산은 497억원이, 416억원이었던 용산공원

조성 사업 예산은 229억원이 감액됐다.

애초 민주당은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인 지난 2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안을 이날까지 마련해달라며 상정을 보류했었다.

하지만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여야 간 협의가 사실상 이뤄지지 못했고 이날 본회의의 직전 여야가 뒤늦게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정부·여당은 이날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는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예산 3000억원 등 총 1조8000억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1조6000억원과 대왕고래 예산을 복원하는 내용의 증액안을 제안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지역화폐 예산 1조원 규모 확대 및 대왕고래 예산 전액 삭감, 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 유지 등의 입장을 고수하며 협상이 결렬됐다.

/연합뉴스

전라남도

무안국제공항에서 떠나는 - 간편리 해외여행

중국

장가계

라오스

비엔티안

태국

다낭

나트랑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 | | | | | |
|---|--|---|---|--|---|
| <p>일본</p> <p>나가사키</p> <p>화,목,토 제주항공</p> <p>24.12.8 ~ 25.3.29</p> <p>오사카</p> <p>매일 진에어</p> <p>24.12.2 ~ 25.3.29</p> <p>나리타</p> <p>매일 진에어</p> <p>24.12.2 ~ 25.3.29</p> | <p>대만</p> <p>타이베이</p> <p>화,토 제주항공</p> <p>24.12.8 ~ 25.3.29</p> <p>매일 진에어</p> <p>24.12.2 ~ 25.3.29</p> | <p>태국</p> <p>방콕</p> <p>화,목,토,일 제주항공</p> <p>24.12.8 ~ 25.3.29</p> | <p>필리핀</p> <p>마닐라</p> <p>주 2회 로알에어필리핀</p> <p>25.1월 ~ 25.3월</p> | <p>베트남</p> <p>나트랑</p> <p>주 2회 범부항공</p> <p>24.9.15 ~ 25.3.30</p> <p>수,토 비엳젯항공</p> <p>24.11.26 ~ 25.3.12</p> <p>다낭</p> <p>주 2회 범부항공</p> <p>24.8.5 ~ 25.3.25</p> <p>수,토 비엳젯항공</p> <p>24.11.2 ~ 25.3.15</p> <p>달랏</p> <p>주 2회 비엳젯항공</p> <p>25.1.2 ~ 25.2.27</p> <p>하노이</p> <p>수,토 베트남항공</p> <p>24.9.18 ~ 24.12.21</p> <p>푸꾸옥</p> <p>주 2회 비엳젯항공</p> <p>24.12.20 ~ 25.3.2</p> | <p>캄보디아</p> <p>시엠립</p> <p>목,일 캄보디아에어웨이</p> <p>24.12.29 ~ 25.3.13</p> <p>무안-제주</p> <p>월,수,금,일 제주항공</p> <p>24.12.9 ~</p> <p>제주-무안</p> <p>매일 진에어</p> <p>24.12.2 ~</p> |
|---|--|---|---|--|---|

MUAN INTERNATIONAL AIRPORT